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음악 듣는 것 좋아하시죠? 보통 어떤 방식으로 들으시나요? (대답을 듣고) 네, 그렇군요. 대부분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계시네요.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도 정기구독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혹시 책도 이렇게 디지털 정기구독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먼저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반응을 살피고) 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네요. (화면을 띄우며)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의 책들은 올해에 전자책으로 발행된 책들 중 일부입니다. 소설, 에세이, 인문, 과학 등 여러 장르의 책들이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디지털 정기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다양한 전자책들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정기결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장점을 살려 오디오북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는 독서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혹시 여러분은 책을 일 년에 몇 권정도 읽으시나요? (화면을 바꾸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연간독서량은 성인 8.3권, 고등학생은 8.8권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독서량은 약 8권이라고 합니다. 기존 독서량의 10배도 넘는 수치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전자책과 정기구독 서비스가 독서량을 늘려 출판시장에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와 전자책으로 인해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전자책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이 등장한지 10년 정도가 흐른 지금도 종이책은 건재합니다. 게다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로 먼저 책을 접하고 이후에 동일한 책을 종이책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책과 종이책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보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적 방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우를 생각해볼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대상을 예시로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지적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떠올린 생각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전자책과 종이책이 서로 보완관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자책이 종이책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제시하였는데, 그건 전자책의 등장 자체가 종이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아.

- ① 국내 연간 독서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는데, 응답자들이 전자책을 읽은 것도 포함하여 독서량을 답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②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는데, 제도적 차원에서 공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③ 발표 내용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기구독 서비스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이책을 정기결제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는 건가요?
- ④ 전자책과 정기구독 서비스가 독서량을 늘려 출판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직은 전자책 없이 종이책만 출판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 ⑤ 전자책으로 책을 접한 이후에 동일한 책을 종이책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 전자책 등장 이전에 비하면 종이책 시장이 위축되었으므로 오히려 경쟁관계에 더 가깝지 않나요?

3. <보기>는 발표자가 발표를 위한 계획을 정리한 노트이다. 발표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핵심 주제] 전자책과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

[도입]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언급해 흥미 유발 ㉠
-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화제 제시 ㉡

[내용]

-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 소개
- 국내 연간 독서량을 해외와 비교하여 심각성 강조 ㉢
- 전자책과 종이책은 보완관계임을 제시 ㉣

[마무리]

-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존 가능성 언급 ㉤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가)는 토론의 일부이며,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여러 업체가 하나의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 주방’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식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공유 주방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공유 주방은 이미 미국에서는 성공한 서비스이며, 전문가들은 공유 주방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외식업 폐업률은 23.8%로, 산업 전체 평균 폐업률 13.2%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외식업의 높은 폐업률에는 임대료, 인건비, 가맹비 등과 같은 고정 비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유 주방 서비스는 이러한 고정비 부담을 줄여, 외식업의 폐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공유 주방 서비스가 외식업의 폐업률을 낮춰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반대 측 이에 대한 반대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공유 주방이 외식업계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정비의 감소가 반드시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외식업 창업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져,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외식업에 쉽게 도전했다가 폐업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찬성 1: 최근 공유 주방 서비스는 단순히 주방이라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영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창업만을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식업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이번에는 반대 측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37조 4항을 보면, 음식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 단 하나의 사업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공간에 여러 사업자를 두고 영업하는 방식의 공유 주방은 국내법상 불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유 주방들은 공간을 쪼개어 각각의 업체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공유 주방의 기존 모델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업체가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주방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찬성 측 이에 대한 반대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낡은 규제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 모델에서 발생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케케묵은 사고 아닐까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게 낡은 규제를 변화시키는 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 1: 새로운 사업 모델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식품의 위생

관리는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나)

최근 미국의 공유 주방 서비스 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의향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유 주방’이란 주방 기기 및 설비가 갖추어진 조리 공간을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에는 음식 배달과 관련된 기반 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배달 중심 외식업과 공유 주방 서비스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유 주방은 외식업계의 높은 폐업률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외식업 폐업률은 23.8%로, 산업 전체 평균 폐업률 13.2%와 비교하면 약 2배나 높은 수치이다. 외식업의 폐업률이 이토록 높은 까닭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8 외식업 경영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체 중 사업장을 빌려 쓰는 비중은 85.5%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유 주방 서비스는 임대료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주방 설비 등을 갖추는 고정비를 절감하게 해 주어 외식업계의 부담을 낮추어 줄 것이다. 또한 [A]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유 주방 서비스의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국내 식품위생법 37조 4항에 따르면, 음식점은 하나의 공간에 단 하나의 사업자만을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공간에 여러 사업자를 두고 영업하는 방식의 공유 주방은 국내법상 불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공유 주방 서비스들은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주방을 쪼개어 임대하는 등 다소 변형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처음에는 공유 주방이 불법이었으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공유 주방을 합법화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 공유 주방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가)에서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1’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찬성1’은 상대방의 지적을 인정하고, 대상의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
- ③ ‘반대1’은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반대2’는 상대방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⑤ ‘찬성1’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시대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5. (가)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품 위생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히 개정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유주방 서비스는 외식업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준다.
- ③ 신사업의 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를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
- ④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신사업은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⑤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6. 다음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메모한 내용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작문 계획

*** 1문단**

- 찬성 측의 공유주방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에 근거를 보강하여 제시해야겠어. ①

*** 2문단**

- 찬성 측이 제시한 보고서를 통해 외식업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고정비 부담임을 자세히 밝혀야겠어. ②
- 토론에는 제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인용함으로써 내용의 신뢰도를 높여야겠어. ③

*** 3문단**

- 반대 측이 제시한, 공유 주방 서비스가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힘든 이유도 언급해야겠어. ④
- 찬성 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유 주방 서비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야겠어. ⑤

7. (가)의 [A]를 고려할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유 주방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공유 주방 서비스는 이미 포화 상태인 외식업계의 창업을 더 쉽게 만들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③ 공유 주방 서비스는 창업 시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그것이 곧바로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유 주방 서비스는 영업 관련 교육도 함께 제공하므로 외식업계의 높은 폐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 공유 주방 서비스는 창업의 문턱을 낮추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외식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학생의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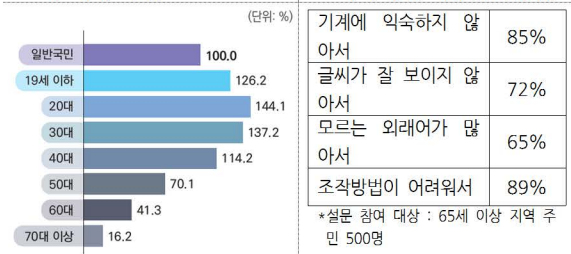
- **작문 과제:** 키오스크 도입의 불편함에 대해 지역 신문에 투고하는 글을 쓴다.
-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 노인들은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
-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에 비해 노인들이 기술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현저히 느리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③ 통계자료

- 1. 2017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
- 2.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⑤ 전문가 인터뷰

키오스크(Kiosk) 시스템은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말합니다. 무인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 각종 대중교통의 발권 시스템과 스포츠 경기, 영화, 연극 등의 발권 시스템, 패스트푸드점, 학교의 학생식당 등 대형 식당의 주문 시스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③ 신문기사

노년층에게 무인 기계를 사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힘들게 시도한다고 해도 'IC칩이 아래로 향하도록 카드를 넣어 달라'는 안내 목소리는 생소하기만 하다. 나아가 SMS(문자 메시지), ARS(자동 응답 전화) 인증, CVC번호(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글자리) 등 설명 없이 약어로만 표시돼 노년층이 사용하기엔 힘들다.

(나) [학생의 초고]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기계인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셀프 주문'하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주요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60%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커피 전문점도 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는 데다 주문 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모두에게 편리한 것은 아니다.

키오스크는 편리함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패스트푸드점이 무인화 매장으로 대체되면서 스마트 기기에 취약한 노인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매장 직원에게 주문하려고 해도 주문을 키오스크만으로 받는 가게에서는 주문이 아예 불가능하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올 때마다 주문에 곤란을 겪는다고, "그냥 예전처럼 사람이 주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매번 반복되니까 부끄럽기도 하

고 소외감도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키오스크가 주는 많은 장점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인들도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매장의 경우, 셀프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잘 보이는 위치에 자세한 사용법을 게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키오스크의 글씨가 작아 노인들이 읽기에 불편한 경우도 있다. 은행의 ATM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기능이 키오스크에도 도입된다면 글씨가 작아서 생기는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키오스크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노인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

8. ㉠~㉣을 고려하여 ㉡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도입부에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해, 노인들이 기기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 ④ ㉠과 ㉣을 고려해, 문제 상황에 처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과 ㉣을 고려해, 일부 계층을 외면한 채 발달하고 있는 기술의 빠른 속도를 지적한다.

9. ㉡를 활용하여 ㉡를 보충하기 위하여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에 취약하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② ㉡-2를 활용하여, 키오스크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③ ㉡를 활용하여, 키오스크가 패스트푸드점 외의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④ ㉡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키오스크 주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한다.
- ⑤ ㉡-2와 ㉡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에 약어와 외래어를 풀어써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0. <보기>는 [A]를 구성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마지막 문단은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를 상기시키면서, 이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도록 마무리해야겠어.

- ①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 부족 문제가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② 고령자들의 정보 격차는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노인들이 변화에 도태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스마트 기기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기기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④ 디지털화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눈부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⑤ 키오스크는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기 인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11 ~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국어에서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는 시제표현과 높임표현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다. 시제표현의 경우, 용언이나 서술격조사의 어간 뒤에 ‘-았-’과 그 이형태가 결합하여 과거를 나타내고, ‘-겠-’이나 ‘-리-’ 등이 결합하여 미래를 나타내며, 동사 어간의 경우에만 ‘-는-’과 그 이형태가 결합하여 현재를 나타낸다. 높임표현의 경우에는 ‘-시-’만이 결합하여 주체를 높이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가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표현과 시제표현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칭표현이나 감동표현에도 쓰였다. 먼저 높임표현의 경우, 주체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시-’와 ‘-샤-’가 쓰였는데, 각각 후속 어미가 자음어미이거나 매개어미일 경우에는 ‘-시-’가, 모음어미일 경우에는 ‘-샤-’가 나타났다. 이때, ‘-샤-’ 뒤에 오는 모음은 보통 생략되어 ‘-밀- + -(으)샤- + -웃- + -다 → 미드샷다’와 같이 쓰였다. 또 객체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특수 어휘만 사용하는 현대국어와 달리 음운환경에 따라 각각 ‘-술-’, ‘-줄-’, ‘-술-’과 같은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고, 상대높임의 경우 역시 종결어미로만 실현되는 현대국어와 달리, 의문형 종결어미 앞에서는 ‘-잇-’이, 그 외 종결어미 앞에서는 ‘-이-’와 같은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다. 시제표현의 경우에는 동사 어간 뒤에 ‘-느-’가 결합하여 현재시제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

(ㄱ) 내이제너드려문노라(내가 이제 너에게 묻는다.)

(ㄴ) 밋스매원히즐겁도다(마음에 원히 즐겁다.)

(㉠)은 주어가 화자와 동일한 1인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인칭 표현 선어말어미 ‘-오-’가 사용된 사례이다. (㉠)에서 ‘묻노라’는 ‘묻- + -느- + -오- + -라’로 분석되는데, 이때 동사 어간 ‘묻-’ 뒤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느-’와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오-’가 함께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 화자의 감동, 영탄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감동표현 선어말어미 ‘-도-’가 사용된 사례이다. (㉡)에서 ‘즐겁도다’는 ‘즐겁- + -도- + -다’로 분석되는데, 이때 형용사 어간 ‘즐겁-’과 종결어미 ‘-다’ 사이에 ‘-도-’가 결합하여 화자의 감동을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도-’의 흔적은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데, 현대국어의 종결어미 ‘-도다’는 ‘-로다’와 함께 예스러운 표현으로서 감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도-’ 이외에도 ‘-듯-’, ‘-웃-’, ‘-스-’ 등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11.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겠-’, ‘-셨-’ 등을 사용하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를 중첩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 ② ‘-시-’가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의 ‘-시-’나 ‘-샤-’도 어말어미 앞에 나타났다.
- ③ ‘-는-’과 같은 선어말어미가 동사 어간에만 결합하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의 ‘-느-’는 형용사 어간에도 결합했다.
- ④ ‘주다’ 대신 ‘드리다’ 등을 사용하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객체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⑤ ‘-니까’ 앞에 선어말어미 ‘-습-’이 결합하여 상대높임을 나타내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서도 선어말어미를 통해 상대높임을 실현하였다.

12. 밑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ㄱ~ㄴ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구이 묻즈븍사디 드스케 쓰시리(구이가 물으시길, “무엇에 쓰시려 합니까?”)

ㄴ. 선혜 대답흐사디 부텃고 받즈보리라(선혜가 대답하시길, “부처께 드릴 것이다.”)

ㄷ. 書生은 呼마 銘을 사기돏다(서생은 벌써 명을 새겼구나.)

ㄹ. 내 널오되 그되 恩惠를 모르돏다(내가 이르기를, “그대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ㅁ. 大王하 였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대왕이시여,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

- ① ㄱ의 ‘묻즈븍사디’와 ㄴ의 ‘받즈보리라’에서는 객체높임 선어말어미가 나타나는 음운환경이 동일했군.
- ② ㄱ의 ‘쓰시리’와 달리 ㅁ의 ‘모르시느니잇고’에는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군.
- ③ ㄷ의 ‘사기돏다’와 ㄹ의 ‘모르돏다’는 모두 ‘-웃-’을 활용해 화자의 감동을 표현했군.

- ④ ㄴ의 ‘받즈보리라’와 달리 ㄹ의 ‘널오되’에는 주어와 화자가 동일함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쓰였군.
- ⑤ ㄹ의 ‘모르돏다’와 달리 ㅁ의 ‘모르시느니잇고’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활용되었군.

13.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보기>의 ㉠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 보 기 >

피동과 사동은 ‘-이-, -히-, -리-, -기-’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를 공유하기에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목적어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 표현으로, 있으면 사동 표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① 그의 옷이 문고리에 걸렸다.
- ② 나는 아들을 나무 뒤에 숨겼다.
- ③ 그는 선생님께 편지를 빼앗겼다.
- ④ 나는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 ⑤ 그녀는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다.

14. <보기>와 같이 녹취를 풀어 적을 때, 학생들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제 지베서 라며이나 머그려고 찬짱 소글 차차 뵈는데 아무건또 업는 거야 그래서 무를 올려 노코 그피 지밥 가게로 뛰어가서 사완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끝턴 냄비가 다 탈떠라

- ① [아무건또]와 [탈떠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사례이니, 각각 ‘아무것또’, ‘땃떠라’로 써야지.
- ② [노코]와 [그피]는 예사소리와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로 난 사례이니, 각각 ‘놓고’와 ‘급히’로 써야지.
- ③ [업는]과 [끝턴]은 탈락과 교체 that 일어난 사례이니, 원형을 밝혀서 각각 ‘업는’, ‘끓턴’으로 써야지.
- ④ [뵈는데]와 [사완는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 뒤에 오는 ‘ㄴ’을 닮아 앞 자음이 비음화 된 사례이니, 각각 ‘뵈는데’, ‘사왔는데’로 써야지.
- ⑤ [지베서]와 [라며이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이어지면서 위치만 바꿀 뿐 음운변동은 없는 것이니, 각각 ‘집에서’, ‘라면이나’로 써야지.

15. <보기>의 ㄱ~ㄴ을 통해 파생접사와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ㄱ.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목표를 ㉡높여 왔다.

ㄴ.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새벽부터 학교에서 ㉣달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ㄷ. 담임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 반에 면학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모두 반장 덕분이다.

- ① ㄱ의 ㉠과 ㉡로 보아 동일한 형태의 파생접사가 어근의 품사를 각각 다르게 바꿀 수 있다.
- ② ㄴ의 ㉢과 ㉣로 보아 동일한 형태의 형태소가 파생접사로 쓰일 수도 있고, 어미로 쓰일 수도 있다.
- ㉢의 ㉤와 달리 ㉥의 ㉥은 파생접사가 체언과 결합하여 명사 어근을 형용사 어근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ㄱ의 ㉤는 파생접사와 어미가 축약되어 표기되었고, ㄷ의 ㉤는 어미와 어미가 축약되어 표기되었다.
- ⑤ ㄴ의 ㉥는 어말어미가 용언을 명사처럼 쓰이게 하지만, ㄷ의 ㉥는 어말어미가 용언을 관형사처럼 쓰이게 하고 있다.

[16 ~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적인 확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 빈도주의적 확률론은 ‘동일한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원하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정의하는데, 이때 경우의 수는 사건의 발생 ㉡ 빈도와 밀접하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0.5이다.”라는 말을 빈도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동전을 1만 번 던질 때 앞면이 5천 번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 된다. 이때 0.5라는 확률은 큰수의 법칙에 따라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반복 시행하였을 때 발견되는 값으로, 단순히 한두 차례 동전을 던지는 것은 빈도주의적 확률 계산과 무관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큰수의 법칙에 ㉢ 부합할 만큼의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확률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 주관주의적 확률론으로, 이는 확률을 발생 빈도가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사건의 확률은 0.5이다.”라는 말은,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라는 명제의 신뢰도가 0.5라는 뜻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관적인 신뢰도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영화가 반장이 될 것으로 믿는 확률이 0.7이라면 이와 ㉤ 모순되는 사건에 대한 확률, 즉 영화가 반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 확률은 0.3이어야만 이러한 믿음이 정합성을 갖는다.

이러한 주관주의적 확률론을 활용하면 어떠한 가설이 참 또는 거짓일 확률에 대한 논의가 용이해진다. 빈도주의는 충분한 반복 시행이 불가능한 가설에 대한 확률을 논의하기 어렵지만, 주관주의는 일회성 사건 또는 불확실한 가설에 대한 확률도 그 신뢰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쟁적인 가설들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각 가설들을 일일이 반복 시행하지 않더라도 가설들 간의 신뢰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베이즈 추론은 이러한 주관주의적 확률 개념을 토대로 어떤 가설에 대한 신뢰도를 고쳐 나가는 추론 방식을 가리키는데, 이는 조건부 확률¹⁾을 계산하는 공식의 일종인 베이즈 정리에 ㉦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사건 H가 일어날 확률을 P(H), 사건 D가 일어날 확률을 P(D), 사건 H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을 P(D|H), 사건 D가 일어났을 때 사건 H가 일어날 확률을 P(H|D), 사건 H와 D가 함께 일어날 확률을 P(H∩D)라고 표현하며, 조건부 확률은 $P(D|H) = P(H\cap D)/P(H)$ 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H와 D가 함께 일어나는 사건은, H가 일어나고 또 H가 일어난 상황에서 D가 일어나는 사건과 같으므로 $P(H\cap D) = P(H) \times P(D|H)$ 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P(H\cap D) = P(D\cap H)$ 이므로 $P(H) \times P(D|H) = P(D) \times P(H|D)$ 가 성립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수식에서 조건부 확률 P(H|D)가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나머지 3개의 알려진 값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베이즈 정리의 핵심 원리로, 이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P(H) \times P(D|H) / P(D) = P(H|D)$$

여기서 H를 불확실한 가설, D를 관측 가능한 자료라고 한다면, 위 수식은 가설의 사전확률 P(H)를 자료 D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확률 P(H|D)로 ㉧ 갱신하는 절차가 된다. 또, 만약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가 채차 유입되면 기존의 사후확률을 새로운 사전확률로 사용할 수도 있다. 결국 베이즈 추론은 어떤 가설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학적 과정에 대한 수학적 표현인 것이다.

- * 큰수의 법칙: 어떤 일을 반복할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할 비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확률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
- * 조건부 확률: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제약 아래에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16.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인 확률 해석은 어떤 사건을 반복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특정 사건의 발생 빈도를 중시한다.
- ② 특정 사건의 확률에 대한 빈도주의적 해석과 주관주의적 해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 ③ 확률을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주관주의적 확률론이라 하더라도, 확률을 아무런 논리 없이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베이즈 추론에 따르면 어떤 가설의 사후확률은 가설의 신뢰도를 채차 갱신하기 위한 새로운 사전확률로 사용될 수 있다.
- 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17. ㉠, ㉢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마찬가지로 큰수의 법칙을 중시한다.
- ② ㉠은 ㉢과 달리 일회성 사건의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
- ③ ㉠은 ㉢과 달리 베이즈 추론의 수학적 기반을 이룬다.
- ④ ㉢은 ㉠과 달리 불확실한 가설들 간의 확률을 비교할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확률에 대한 비정합적인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1>의 명제를 해석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 < 보기 1 > —

㉠ 1~6이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은 1/6이다.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후보 1번이 당선될 확률은 3/4이다.

— < 보기 2 > —

ㄱ. ㉠은 ㉡에 비해, 빈도주의적 확률론을 따르는 해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명제라 할 수 있겠군.

ㄴ. ㉠을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주사위를 던질 때 6이 나올 것이라는 명제의 신뢰도가 1/6이라는 의미가 되겠군.

ㄷ. ㉡은 ㉠에 비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원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명제라 할 수 있겠군.

ㄹ. ㉡을 빈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대통령 선거가 1,000번 반복될 때 후보 1번의 당선이 약 750번 일어난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가 되겠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밑글에서 설명한 베이즈 정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가 있다. 해당 도시의 폐암 환자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니, 100명 중 10명이 폐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갑’이 신뢰도가 90%인 폐암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검사의 신뢰도란, 폐암에 걸린 사람이 검사를 받을 경우 양성 반응이 오류 없이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해당 도시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을 P(폐암)이라고 하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을 P(양성)이라고 하자. 폐암이 아닐 때 검사에서 양성인 나올 확률은 P(양성|비폐암), 폐암일 때 검사에서 양성인 나올 확률은 P(양성|폐암)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P(양성)은 폐암이 아닌 사람이 검사를 받아 양성인 나올 확률과, 폐암인 사람이 검사를 받아 양성인 나올 확률을 더한 값이므로, $P(\text{비폐암}) \times P(\text{양성}|\text{비폐암}) + P(\text{폐암}) \times P(\text{양성}|\text{폐암})$ 이다.

- ① 주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면 $P(\text{폐암})=0.1$ 이다.
- ② 주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면 $P(\text{양성})=0.18$ 이다.
- ③ $P(\text{양성}|\text{비폐암})$ 은 검사의 양성 반응이 오진일 확률을 뜻한다.
- ④ 검사의 신뢰도가 90%라는 말은, $P(\text{폐암}|\text{양성})=0.9$ 라는 뜻이다.
- ⑤ 양성 반응이 확인된 ‘갑’이 실제로 폐암에 걸렸을 확률은 0.5이다.

20.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요즘 해당 제품의 사용 빈도(頻度)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② ㉡: 사회적 통념과 부합(符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③ ㉢: 정부의 이번 정책은 헌법과 모순(矛盾)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④ ㉣: 논문을 기초(起草)하는 일은 끝났으니 이제 퇴고를 시작하겠다.
- ⑤ ㉤: 인간의 학습 과정은 정보 갱신(更新)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21~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조웅이 스승에게 나아가 여쭙었다.

“어머님을 객지에 두우고 오랫동안 뵈지 못했으니 잠깐 찾아뵈옵고 오겠습니다.”

천명도사는 허락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했다. 조웅이 하직하고 적토마에 올라 한 번 채찍질하고 바람같이 달려갔다.

어느 새 칠백 리 밖의 강호 땅에 이르러 한 객점에 들어가 쉬었다. 이 객점은 위나라 장 진사의 집인데 진사는 일찍이 죽고 그 부인 위 씨가 홀로 딸 하나만을 데리고 사는 집이었다. 그 진사의 딸이 인물도 아름답고 학문에도 뛰어나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하여 그 모친은 딸에 어울리는 훌륭한 신랑을 얻고자 객점을 차리고 오가는 길손을 청하여 은근히 인물을 구경하던 참이었다.

이날 조웅이 들어가니 위 부인이 계집종에게 어떤 손님이나 물었다. / “마님, 어린 나그네이옵니까.”

계집종은 간단히 대답했다. 위 부인은 크게 실망하여 딸의 나이가 벌써 열여섯인데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안타까워했다. 조웅은 저녁을 먹고 뜰에 나가 밝은 달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때 안채로부터 피피리같이 아름답고 고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초산의 나무를 베어 객실을 지은 뜻은 인걸을 보려한 것인데, 영웅은 아니 오고 거지들만 오는구나.

[A] 오동나무 베어 거문고를 만든 뜻은 원앙새를 보려한 것인데 까마귀만 지저귀는구나.

아이야, 술잔에 술 부어라. 술로써 근심이나 풀자꾸나.

조웅은 자기도 모르게 노랫소리에 취해 정신이 황홀해졌다. 이에 행장을 풀어 통소를 꺼내어 화답하니 그 소리가 그지없이 맑았다. 모친과 딸이 내당에서 이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다. 이어 우렁찬 노랫소리가 들려오니 그 가사는 이러했다.

십 년을 공부하여 천문도를 배운 뜻은 달나라의 항아를 보려 했더니, 은하수에 오작교가 없어 오르기 어렵구나.

[B] 푸른 대나무를 베어 통소를 만든 뜻은 그리운 님을 보려한 것인데, 그 누가 이 뜻을 알리오.

아저러, 아는 이 없으니 객수(客愁)나 위로할까 하노라.

모친과 딸이 듣고 마음이 황홀하여 중문으로 나와 살며시

옛보니 나그네의 얼굴이 비범하고 풍채가 훌륭한 것이 눈이 번쩍 뜨였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딸을 보고 말했다.

“공자 같은 성인이 나시매 기린이 나고, 아름다운 딸이 나매 영웅이 나는도다.”

하니, 장 낭자가 부끄러워 별당에 들어가 숨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부친이 나와 엄숙히 이르기를,

“너의 평생 좋은 짝을 데려왔으니 오늘밤에 아름다운 인연을 맺도록 하라. 집 없는 나그네이니 한 번 가면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시며 빨리 나가라고 성화같이 재촉하는 것이었다. 장 낭자가 일어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일곱 개의 별을 입에 물은 황룡이 내려와 치마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크게 놀라 깨어보니 일생에 한 번도 보기 힘든 기이한 꿈이었다.

이때 조웅은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져 중문을 열고 별당까지 이르렀다. 장 낭자가 이를 보고 놀라 이불 속에 몸을 숨기니 조웅은 부드럽게 말했다.

“낭자께선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길 가던 나그네인데 시를 읊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왔소이다.”

장 낭자가 황망히 대단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어찌 예절을 돌보지 않고 아녀자의 방에 들어오십니까? 어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조웅은 물러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 “낭자께서는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나도 양반의 후예이니 어찌 예절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지금의 처지가 부모의 승낙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나중에 아뢰기로 하고 백년가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중략 줄거리> 조웅은 어머니를 만나 장 낭자와 혼약했음을 알리고,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간다. 이후 서번이 침공하자 조웅은 위왕을 돕기 위해 출정하고, 장 낭자는 강호자사의 강압에 의해 그와 혼인을 하게 된다. 혼인 전날, 장 낭자는 부친이 유서를 통해 지시한 대로 물레 집을 빠져나와 도망쳐 한 절에 이른다.

이곳은 바로 조웅의 모친 왕 부인이 계신 절이었다. 이에 중들이 장 낭자를 왕 부인과 월경대사가 계신 곳으로 데려갔다. 왕 부인이 보니 세상에서 보기 힘든 미인이라 평범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은근히 물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험한 고생을 겪는구나. 위국땅에 산다고 하니 이번 싸움의 승패를 아는가?”

장 낭자가 절하며 아뢰었다.

“오다가 듣자오니 서번 오랑캐가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하옵니다.”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조웅이 반드시 살아오리라 믿고 근심을 덜었다. 이어 장 낭자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다가 물었다.

“강호에 살았다면 혹시 장 진사댁의 딸을 아는가?”

장 낭자가 크게 의아하여 도리어 물었다.

“어떻게 장 처녀를 아십니까?”

그러자 왕 부인은 아들 조웅이 그간에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장 낭자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행장을 끌러 부채를 내놓았다. / “소녀가 공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즉시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때 공자께서 주고 가신 신물이옵니다.”

왕 부인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 낭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 “내가 정말 장 처녀라면 나의 며느리이니라.”

하면서, 부채를 들어 유심히 살피며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부채는 내 아들 웅의 부채가 틀림없구나. 그 아이가 전에 산을 내려가서 장 진사댁의 사위가 되었다고 하면서 네 말을 여러 번 했느니라. 내 생전에 너를 보지 못하고 죽을까 염려했더니 하늘이 도우사 오늘 이렇게 만났구나.”

- 작자 미상, 「조웅전」

* 향아(姮娥):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 상아(嫦娥)

* 자사(刺史): 중국에서 군(郡), 국(國)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주에 두었던 감찰관.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점을 전환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통해 중심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 ③ 전기적 성격을 띤 사건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 ④ 특정한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가 밝혀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작중에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2.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밤중에 ‘장 낭자’의 방으로 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은 성급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계집중’의 말만 듣고 ‘조웅’의 비범함을 눈치 채지 못한 채 실망하는 것으로 보아 ‘왕 부인’은 경솔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강호자사’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조웅’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아, ‘장 낭자’는 신의가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장 낭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유사한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왕 부인’은 의심이 많은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조웅’이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도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하는 것으로 보아, ‘천명도사’는 세속과 절연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23. 윗글의 [A]와 [B]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화자는 ‘조웅’을 만난 첫인상에 대한 실망을 ‘거지’, ‘까마귀’ 등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B]의 화자는 ‘통소’의 연원을 밝히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군.
- ③ [B]와 달리 [A]의 화자는 대비적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B]의 화자는 자신의 노래가 [A]의 답가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시의 의미 구조를 차용한 것이겠군.
- ⑤ [A]와 달리 [B]의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군.

24. <보기>를 참고로 하여 밑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소설에서 결연담은 일반적으로 순차적 구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연 주체들이 서로를 인식한 후 상대를 탐색하며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알리는 ‘㉠ 인식과 구애’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주체들의 욕망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다가 ‘㉡ 결연’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교감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을 때를 약속하면서 사물을 교환하는 ‘㉢ 기약’으로 이어진다. 그 후 내적 심경의 변화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시련을 겪지만 이를 이겨내는 ‘㉣ 장애와 극복’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각 단계는 주체들의 욕망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

- ① ‘장 낭자’와 ‘조옹’이 자신을 알리는 매개체로서 노래를 주고 받는 것은 ㉠로, 주체들의 욕망과 의지를 통해 상황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장 낭자’가 ‘위 부인’의 허락 없이 ‘조옹’과 교감을 이루는 것은 ㉡로, ‘위 부인’이 두 인물의 결연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장 낭자’가 ‘왕 부인’에게 보여준 부채는 ㉢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 낭자’와 ‘조옹’은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인받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군.
- ④ ‘장 낭자’가 ‘강호자사’와 강제로 결혼하는 위기에 처했으나 탈출하여 ‘왕 부인’과 만나게 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이므로 ㉣라고 볼 수 있군.
- ⑤ ‘장 진사’는 꿈을 통해 ‘장 낭자’와 ‘조옹’을 맺어주거나 유언을 통해 ‘장 낭자’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므로, ㉠과 ㉣에서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군.

[25 ~ 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는 유교 경전인 「대학(大學)」의 핵심 개념으로, 본래의 의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후대 유교의 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교의 주류 학파였던 ㉠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는 격물의 ‘격(格)’을 ‘이르다’로, 치지의 ‘치(致)’를 ‘극까지 추구하다’로 풀이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격물은 ‘물(物)’ 즉 외부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연구한다는 뜻이 되며, 치지는 ‘지(知)’ 즉 앎을 극한까지 추구하여 미진한 바가 없도록 한다는 뜻이 된다. 결국 치지는 격물을 통해 얻는 성과로서, 주희는 이들의 관계가 ‘식사-포만감’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말로 불렀다.

주희에게 격물치지의 궁극적 목적은 우주의 보편적 이치, 즉 ‘이(理)’에 대한 인식이었다. 주희는 우주 만물이 ‘이(理)’와 ‘기(氣)’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는 이기이원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에 해당하는 ‘성(性)’이 곧 ‘이(理)’라는 ‘성즉리설(性即理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氣)는 감정이나 정욕에 따라 변화하는 마음과 밀접하므로, 변덕스러운 기(氣)보다는 타고난 도덕적 본성인 이(理)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주희의 격물치지란 도덕적 본성인 이(理)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우리가 주자학을 ‘이학(理學)’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은 이에 연유한 것이다.

주희는 개별 사물의 구체적 이치는 사물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든 사물에 보편적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격물을 통해 치지를 얻는 과정을 반복하면 개별 사례로부터 보편적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보편적 이(理)는, 성즉리설의 관점에서, 인간 본연의 도덕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주희의 격물치지는 결국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에 선행해야 한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의 태도를 내포한 셈이다.

한편 명나라의 사상가 왕수인은 주자학을 비판하며 격물치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마음[心]이 곧 이(理)라는 심즉리설(心即理說)을 주장한 왕수인의 관점에서, 성즉리설에 기초한 주자학은 심과 이를 분리하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또 그는 무수히 많은 개별 사물의 이치를 모두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더라도 연구만으로는 참된 도덕적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왕수인은 치지를 ‘치량지(致良知)’로 풀이하고 격물의 ‘격(格)’을 ‘바로잡다(正)’로 풀이함으로써, 새로운 유학인 ㉡ 양명학을 정립하였다.

왕수인은 먼저 치량지를 참된 앎인 ‘양지(良知)’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에게 참된 앎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생득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정오(正誤)를 판단하여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왕수인은 앎과 실천이 그 순서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관점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격물을 외부 사물의 부정한 바를 바로잡아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주희에게 물(物)이 이치를 연구해야 하는 인식의 대상이었다면, 왕수인에게 물(物)은 옳고 그름을 파악해야 하는 판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 이러한 왕수인의 해석을 종합하면, 주희의 격물치지는 ‘치지격물(致知格物)’로 전환된다. 내 마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양지, 즉 도덕적 능력을 자각하여 실현하는 것이 치량지다. 그리고 치량지를 통해 내 마음의 이(理)를 외부 사물에 확충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이다. 따라서 왕수인은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을 연구하여 이치를 찾기보다는, 내적 수양을 통해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깨달을 것을 강조하였다. 양명학을 이학(理學)과 대비하여 ‘심학(心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 양명학(陽明學) : 왕수인의 호인 양명을 따서 그의 사상을 이르는 말.

2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희는 격물과 치지의 본래 의미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 ② 주희는 개별적으로 다른 사물 모두에 보편적인 도덕적 본성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왕수인은 기존의 이기이원론인 관점을 타파하고 이(理)와 기(氣)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였다.
- ④ 왕수인의 양명학은 기존의 주류 학설이었던 주자학을 대체하여 유교의 새로운 중심적 이론이 되었다.
- ⑤ 주희는 연구를 통해 마음[心]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본성인 이(理)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26. ㉠과 ㉡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지식의 추구가 실천에 선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은 ㉡과 달리, 외부에서 보편적 이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은 ㉠과 달리, 인간이 가진 도덕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 ④ ㉡은 ㉠과 달리, 마음과 이치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⑤ ㉡은 ㉠과 달리, 외부 사물을 인식이 아닌 판단의 대상으로 보았다.

27.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희의 격물은 '외부 사물에 이르다'라는 뜻인 반면, 왕수인의 격물은 '외부 사물을 바로잡다'의 의미이다.
- ② 주희의 격물치지는 격물과 치지를 통합하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치지와 격물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다.
- ③ 주희의 격물치지는 격물이 치지에 선행(先行)하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치지가 격물에 선행하는 것이다.
- ④ 주희의 격물치지는 외부를 인식하여 앎을 쌓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나의 깨달음을 확장하여 외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⑤ 주희의 격물치지는 개별에서 보편적 이치를 끌어내는 것인 반면, 왕수인의 치지격물은 보편적 깨달음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28. 밑줄과 <보기>를 모두 고려할 때, 학자들 간의 사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조선 후기의 학자 최한기는,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이치인 이(理)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기존 유학이 강조했던 경전의 탐구 또는 마음의 수양 모두를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타고난 본성은 없으며,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은 다음, 사물의 객관적 법칙과 비교하여 그 지식에 오류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지식의 획득 과정을 추측(推測), 그 검증 과정을 증험(證驗)이라 하며, 추측으로 얻은 지식을 추측지리(推測之理), 사물의 객관적 법칙을 유행지리(流行之理)라 한다.

최한기는 유행지리는 인간의 도덕과는 상이한 원리이며, 이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 세계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추측과 증험으로 얻은 이(理)는 도덕성이 탈각된 사물 자체의 이(理), 즉 '물리(物理)'라고 보았다. 결국 최한기는 격물치지를 객관적인 물리를 획득하는, 일종의 경험적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 ① 학문의 궁극적 목표를 인간적인 도덕에 둔 주희·왕수인과는 달리, 최한기는 학문을 통해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로군.

- ② 왕수인은 자신의 도덕을 기준으로 외부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최한기는 외부 사물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식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로군.
- ③ 최한기가 제시한 '추측'은 주희가 해석한 '격물'과 어느 정도 비슷한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최한기가 제시한 '증험'은 왕수인이 해석한 '격물'과 상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격물치지'를 외부에 대한 탐구인 '격물'을 통해 앎인 '치지'를 얻는다고 해석할 경우, 주희와 최한기의 '격물'은 어느 정도 유사한 의미가 되는 반면 주희와 최한기의 '치지'는 상이한 의미가 되겠군.
- ⑤ '치지격물'을 앎인 '치지'를 외부에 적용하는 '격물'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왕수인과 최한기의 '치지'는 상이한 의미가 되는 반면 왕수인과 최한기의 '격물'은 유사한 의미가 되겠군.

[29~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느실식,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느려오니
㉠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랴
일장검(一長劍) 비기 주고 병선(兵船)에 구태 올라,
여기진목(勵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를 구버보니
벼람 조진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해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혼뵈칠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하고,
㉡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輊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ㅁ 아니면 풍파 만리(風波萬里) 밋고,
어닉 사이(四夷) 엇볼넌고
무슴 일 흐려 하야 빙 뭇기를 비롯하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ㄴ 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地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느다.
㉢ 어즈버 씨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빅 비록 잇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든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뵈 빈 비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디로록 드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흔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닌여,
만리 장성(萬里長城) 놓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뎌고?
늑딛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흐는 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흐로소니
㉤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각오(潛思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구거(黃帝 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장한(張翰) 강동(江東)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해환(天淸海闊)·하.
어닉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밋플

데일강산(第一江山)에, 부평(浮萍)又 혼 어부생애(漁父生涯)를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둔힐노고?

- 박인로, 「선상탄」 -

- * 주사(舟師): 수군 통주사. 지금의 해군 함장.
- * 진동영(鎭東營): 지금의 부산.
- * 관방중지(關防重地): 변방의 중요한 요새.
- * 여기진목(勵氣瞋目):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뜸.
- * 보천지하(普天地下): 넓은 하늘 아래. 온 세상에.
- * 화하(華夏): 중국의 다른 이름.
- * 잠사각오(潛思覺悟): 깊이 생각하여 깨달음.
- * 천청해활(天淸海闊):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음.

(나)

어떤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고기잡이라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치라 하자니 물건이 없고, 진리(津吏)라 하자니 중류(中流)에 머물러 왕래하지 않으니, 일엽편주(一葉片舟)를 헤아릴 수 없는 물에 띄워서 끝없는 만경창과를 넘다가 거친 바람 놀란 물결에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지면 혼비백산하여 목숨이 지척에 달려 있는데, 이는 지극히 험한 곳을 밟고 지극히 위태로운 일을 무릅쓰는 것이거늘, 그대는 이를 즐겨 아주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냐?”

라고 하니, 주옹이 말하기를,

“아! 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잡고 놓음이 무상한 것이라, 평탄한 육지를 밟으면 태연히 여겨 방심하게 되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떨고 두려워하게 되나니, 떨고 두려워하게 되면 조심하여 굳게 지킬 수 있으려니와, 태연히 여겨 방심하면 반드시 방탕하여 위태롭게 된다.

내 차라리 험한 곳에 처하여 항상 조심할지언정, 안일한 데 살아 스스로 황폐해짐을 막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이리저리 떠돌아 일정한 형적이 없음에야! 만약 한쪽으로 편중이 있게 되면 그 형세가 반드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좌우로 기울지도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그 중심을 지켜 평형을 잡은 뒤에야 기울어지지 않아서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니, 아무리 거센 풍랑인들 어찌 내 마음의 홀로 편안한 바를 이동시킬 수 있겠는가!

또 인간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은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라, 조그마한 내 한 몸이 아득히 그 가운데 빠져 표류하는 것이 마치 일엽편주가 끝없는 만경창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대개 내가 배에 있으면서 한 세상 사람을 보니, 편한 것을 밟고서 환란을 생각하지 않으며, 욕심을 마음껏 부리면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다가, 함께 빠져 망하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 하였다.

이윽고 주옹이 뱃전을 두드리면서 노래하기를,

아득한 강과 바다 유유한데
빈 배를 중류에 띄웠구나.
명월을 싣고 홀로 가노니
애오라지 한평생을 넉넉하게 살리라.

라고 하니, 손이 사례하며 작별하고 가서는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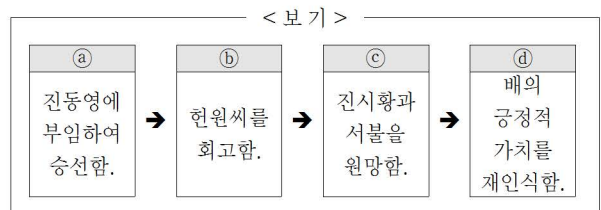
- 권근, 「주옹설(舟翁說)」

- * 진리: 나룻배로 강을 건너주는 사람.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연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제삼자의 관점에서 인물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가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0. (가)를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대마도 쪽을 바라보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에서 화자는 전쟁의 원인으로 배의 존재를 들면서 배를 발명한 현원씨를 원망하고 있어.
- ③ ㉢에서 화자는 일본의 탄생과 전쟁의 원인으로 진시황과 서불을 지목하며 원망하고 있군.
- ④ ㉢에서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화자는 잘못을 따지기 좋아하는 자신의 성품을 반성하고 있어.
- ⑤ ㉣에서 화자는 ㉡에서 품은 생각을 부정하며 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이는군.

31. (가)의 [빚]과 (나)의 [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주옹'의 '배'는 (가)에서 화자의 '빚'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수단이다.
- ② (나)에서 '주옹'의 '배'는 (가)에서 화자의 '빚'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협하게 만든 근원적 요인이다.
- ③ (나)에서 주옹의 '배'는 (가)에서 화자의 '빚'과 마찬가지로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배'는 주옹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대상인 반면, (가)의 '빚'은 화자에게 고난을 부여한 대상이다.
- ⑤ (나)의 '배'는 주옹에게 긍정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반면, (가)의 '빚'은 화자에게 부정적인 도구로만 여겨진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우의(寓意)’는 사회의 지배적 이념을 옹호하는 듯한 표면적 주체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내면적 주체가 충돌하며 긴장감을 자아내는 문학 양식이다. 특히 임병양란(壬丙兩亂) 이후 표면적으로는 우국충절이나 강호가도와 같은 당대의 가치를 예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전란을 막지 못해 백성을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을 도모했던 왕과 신하들을 풍자하는 작품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엄격히 검열하던 사회에서, 사대부들이 가졌던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양가적(兩價的)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 ㉠에서 병이 깊다고 해도 앉아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당대의 지배적 가치인 우국충절을 예찬하던 사대부들의 표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 ㉡에서 ‘현원씨’에 대해 원망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어리미친 회포’라 말하는 것은, 사회적 검열을 의식하여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라 할 수 있겠어.
- ㉢ ㉢은 표면적으로는 전란의 발발을 ‘진시황’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란을 막지 못한 왕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 ㉣은 표면적으로는 ‘서불’의 불충(不忠)을 비난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백성들을 버리고 중국으로의 망명을 도모했던 지배층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겠어.
- ㉤ ㉤에서 갑자기 ‘속결업선 시비’를 쾡개치고는 배를 타고 즐기는 강호가도를 예찬하는 모습을 보니,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사대부들의 양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33 ~ 3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는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인간이 필요한 물자나 용역(用役)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가계, 기업, 정부 등 주요 경제 주체가 소득에서 소비와 저축의 비율을 결정하는 일은 중요한 경제적 의사 결정이다. 또 각 경제 주체의 소비를 ㉠ 집계(集計)하여 얻을 수 있는 ‘총소비’ 역시 학문적 연구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이자율·보유 자산·물가·경기에 대한 전망·기호와 취미·정부 정책 등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소비 간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을 소비함수라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소비함수를 최초로 경제학에 도입한 것은 경제학자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이른바 ‘절대소득가설’에 의한 소비함수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취득하는 ‘절대소득’이며, 다른 요인들은 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케인스 이전의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높은 이자율이 저축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나, 케인스는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 부차적(副次的)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소비함수론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의 소비에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소득만이 영향을 미치며, 소비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다음 일차함수로 표현하였다.

$$C = a + bY \quad (a > 0, 0 < b < 1)$$

위 함수식에서 C 는 소비, a 는 독립적 소비, b 는 한계소비성향, Y 는 당기(當期)의 가처분소득(이후 간단히 ‘소득’으로만 표기한다.)을 의미한다. 먼저 케인스는 Y 값의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 소비 a 는 ㉢ 상수(常數)로 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량의 독립적 소비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계소비성향(MPC) b 는 소득이 추가적으로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소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을 의미한다. 즉 소비 증가분을 ΔC , 소득 증가분을 ΔY 라고 할 때, MPC는 $\frac{\Delta C}{\Delta Y}$ 로 계산된다. 케인스는 인간의 기본 심리상 소비 증가분은 소득 증가분보다 항상 작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b 의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b 의 값은 고소득층의 소비함수보다 저소득층의 소비함수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저축보다는 소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더 쉽게 놓이기 때문이다.

케인스의 소비함수를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갑’이 독립적 소비에 50만 원을 쓰고,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소비가 5만원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갑의 소비함수는 $C = 50 + 0.5Y$ 이 된다. 즉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총 100만 원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갑’의 소득이 100만 원 추가되어 총 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갑의 소비는 총 150만 원이 된다. 여기서 소득 증가분 100만 원에 대한 소비 증가분은 50만 원이므로, 갑의 MPC가 0.5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함수를 따르는 갑은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적자를 보게 되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저축할 ㉣ 여력(餘力)이 생긴다.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케인스의 소비함수를 통해 평균소비성향(APC)을 분석할 수도 있다. APC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frac{C}{Y}$ 에 해당한다. 전술했던 ‘갑’의 경우, 소득이 100만 원인 상황에서 갑의 APC는 $100/100=1$ 이며, 소득이 200만 원인 상황에서 갑의 APC는 $150/200=0.75$ 이다. 그런데 케인스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경제 주체의 APC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함수식을 APC를 중심으로 재 정리하면 $\frac{C}{Y} = \frac{a}{Y} + b$ 가 된다. 여기서 a 는 상수이므로 Y 의 값이 증가할수록 $\frac{a}{Y}$ 의 값은 작아지며, 그에 따라 $\frac{C}{Y}$ 의 값 또한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는 곧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축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제시되었기에 단기적 분석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장기적 분석에서는 약점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후대의 학자 쿠즈네츠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케인스의 예측과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APC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MPC와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소득 이외의 요인들을 ㉢ 간과(看過)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러나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함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경제 불황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단기적 소비 분석에는 여전히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 * 대공황: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규모로 발생하는 극심한 경제적 불황.
- * 가처분소득: 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남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

3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고 글의 뒷부분을 예측해 질문 만들기를 한 다음, 글을 읽고 점검해보자.

예측 내용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케인스가 도입한 소비함수의 의미 및 그 계산 방식이 설명될 것이다.	예측과 같음 ... ①
• '총소비'에 대한 분석이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까닭이 설명될 것이다.	예측과 다름 ... ②
•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케인스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특정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소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케인스의 소비함수론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어 현대에 이르렀을까?	질문의 답이 제시되지 않음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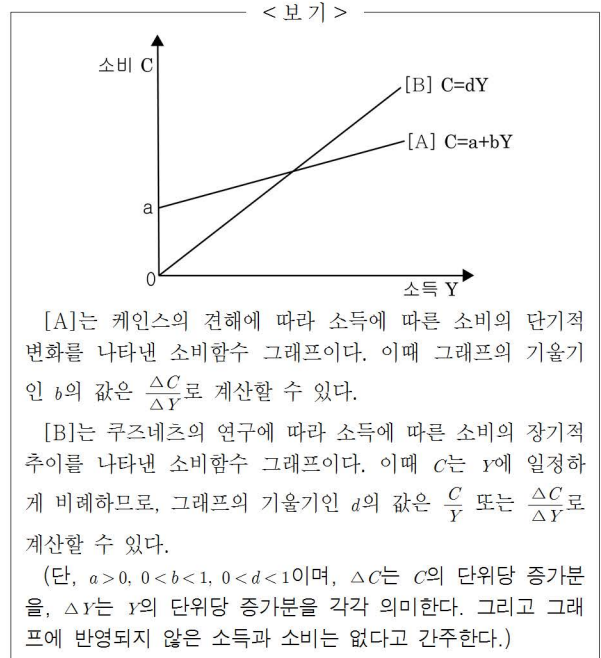
34. 윗글을 고려할 때, 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비 증가에 따라 저축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Y 가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② Y 가 감소할 때 $\frac{C}{Y}$ 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 감소에 따라 저축소득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Y 가 감소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③ Y 가 감소할 때 $\frac{C}{Y}$ 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결국 Y 가 감소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④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결국 Y 가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 ⑤ Y 가 증가할 때 $\frac{C}{Y}$ 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는 의미인데,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므로 결국 Y 가 증가할수록 저축률이 높아지게 된다.

35. 윗글에 제시된 케인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케인스는 고전학과 달리 이자율이 저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케인스는 개인의 소비 수준은 개인의 소득 수준만을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았다.
- ③ 케인스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필수적 소비는 소비함수식에서 소득 값의 변화에 맞추어 변동한다고 보았다.
- ④ 케인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소득 이상의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⑤ 케인스는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소득의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인 소비가 반영된다.
- ② [A]는 [B]와 달리 소득 증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 ③ [B]는 [A]와 달리 한계소비성향의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난다.
- ④ [B]는 [A]와 달리 한계소비성향과 평균소비성향의 값이 일치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37. 윗글에서 설명한 케인스의 소비함수를 적용하여 <보기1>의 상황을 분석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3점]

— < 보기 1 > —

300만 원의 가처분소득을 얻는 ‘을’은 필수적인 의식주에 100만 원을 소비하고, 소득이 50만 원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그 중 30만 원을 소비하는 성향을 보인다. 500만 원의 가처분소득을 얻는 ‘병’은 필수적인 의식주에 150만 원을 소비하고, 소득이 50만 원 추가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그 중 20만 원을 소비하는 성향을 보인다.

— < 보기 2 > —

- ㄱ. <보기1>에 주어진 상황에서 ‘을’의 MPC 값이 ‘병’의 MPC 값보다 크게 나타나겠군.
 ㄴ. ‘을’의 가처분소득이 250만 원으로 감소할 경우, ‘을’은 저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겠군.
 ㄷ. ‘을’의 소비(C_1)와 가처분소득(Y_1)의 관계를 케인스의 소비함수로 나타내면, $C_1 = 100 + 0.4Y_1$ 가 되겠군.
 ㄹ.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을’의 가처분소득만이 500만 원으로 증가할 경우, ‘병’과 ‘을’의 APC 값이 역전되겠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8. 윗글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미 된 계산들을 한데 모아서 계산함.
 ② ㉡: 주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결말된.
 ③ ㉢: 변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값을 가진 수나 양.
 ④ ㉣: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아직 남아 있는 힘.
 ⑤ ㉤: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39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할머니는 언제나 깊은세미에 아궁이에서 굽어낸 고운 재를 문혀 번쩍 광이 날 만큼 대야를 닦았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만을 따로 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바람을 들이지 않은 차양 안쪽 깊숙이 낀 와이셔츠는 몇 번이고 다시 행구어 푸새를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망할 놈의 탄가루들. 못 살 동네야.

할머니가 혀를 차면 나는 으레 나올 뒤텔말을 받았다.

㉠ 광석천이라는 냇물에서는 말이다. 물론 난리가 나기 전 이북에서지. 빨래를 하면 희다 못해 시퍼랬지. 어는 독(瀉)이 그렇게 퍼렷겠니.

겨울 방학이 끝나면 답임인 여선생은 중국인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불러 학교 숙직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숙직실 부엌 바닥에 옷통을 벗겨 엮드리게 하고는 미지근한 물을 사정없이 끼얹었다. 귀 뒤, 목덜미, 발가락, 손톱 사이까지 탄가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왕소금이 돋은 등어리를 찰싹찰싹 때리는 것으로 검사를 끝냈다. 우리는 킬킬대며 살비듬이 푸르르 떨어지는 내의를 머리부터 뒤집어썼다.

봄이 되자 나는 3학년이 되었다. 오전반이었기 때문에 한낮인 거리를 치옥이와 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커서 미용사가 될 거야.

삼거리의 미장원을 지날 때 치옥이가 노오란 목소리로 말했다.

회충약을 먹은 날이니 아침을 굶고 와야 해요.

선생의 지시대로 치옥이도 나도 빈속이었다.

공복감 때문일까, 산토년을 먹었기 때문일까, 해인초 끓이는 냄배 때문일까, 햇빛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도, 치마 밑으로 펼쳐이며 기어드는 사나운 봄바람도 모두 노오랬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체가 썩은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희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옥이가 소근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날을 댈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희고 거대한 벽은 핏빛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떨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내고 있는 중이었다.

㉢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단니까.

치옥이는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 내어 몇 번이고 쑥밭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집을 지어 빈터를 다스렸다. 반자른 드럼통마다 조개탄을 듬뿍 써서 해인초를 끓였다.

치옥이와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찹쌀 찜을 빨아냈다.

회충이 약을 먹고 지랄하나 봐.

아냐, 회충이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도 메스꺼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해인초의 거품도, 조개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해조(海藻)와 뒤섞이는 석회의 냄새도 온통 노란빛의 회오리였다.

왜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해인초를 쓰지? 난 저 냄새만 맡으면 머리털 뿌리까지 뽀하는 것처럼 골치가 아파.

치옥이는 내 어깨에 엮 걸린 팔을 무겁게 내려뜨렸다. 그러나 나는 마냥 늑장을 부리며 천천히 걸어 해인초 냄배, 내가 이시(市)와 나는 최초의 악수였으며 공감이었던 그 노란빛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앞집 치옥이의 집에 놀러 간 어느 날,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창백한 표정의 중국인 청년을 본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

계분 공장에 다니던 치옥이의 아버지가 피땀줄에 감겨 다리가 끊긴 후 치옥이의 부모가 치옥이를 삼거리의 미장원에 맡기고 이 거리를 떠난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나는 매일 학교를 오가는 길에 미장원 앞을 지나치며 유리문을 통해 치옥이를 보았다. 치옥이는 자꾸 기어올라가는 작은 스웨터를 끌어당

겨 바지 허리 위로 드러나는 맨살을 가리며 미장원 바닥에 떨어진 머릿칼을 끌고 있었다.

나는 미장원 앞을 떠났다. 수천의 깃털이 날아오르듯 거리는 노란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㉔ 언제였지, 언제였지, 나는 좀체로 기억나지 않는 먼 꿈을 되살리려는 안타까움으로 고개를 흔들며 집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르러 언덕 위의 이층집 열린 덧창을 바라보았다. 그가 창으로 상체를 내밀어 나를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내가 끌리듯 언덕 위를 올라가자 그는 창문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닫힌 대문을 무겁게 밀고 나왔다. 코허리가 낮고 누른빛의 얼굴에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내게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다. 내가 받아 들자 그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열린 문으로 어둡고 좁은, 안채로 들어가는 통로와 갑자기 나타나는 별다른 마당과, ㉕ 걸음을 옮길 때마다 투명한 맨발에 찰랑대며 묻어 오르는 햇빛을 보았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종이 뭉치를 펼쳤다. 속에 든 것은 중국인들이 명절 때 먹는 세 가지 색의 물감을 들인 빵과, 용이 장식된 엄지손가락 만한 등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금이 가서 쓰지 않는 빈 항아리 속에 넣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산고(産苦)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나 나는 이 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숨바꼭질을 할 때처럼 몰래 벽장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한낮이어도 벽장 속은 한 점의 빛도 들이지 않아 어두웠다. 나는 차라리 죽어 쥐라고 부르짖는 어머니의 비명과 언제부터인가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를 들으며 죽음과도 같은 낮잠에 빠져들어 갔다.

내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이었지만 여덟 번째 아이를 밀어내었다. 어두운 벽장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감과 막막함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리고 옷속에 손을 넣어 거미줄처럼 온몸을 끈끈하게 쥐고 있는 후덥 더러운 열기를, 그 열기의 정체를 찾아내었다.

초조(初潮)였다.

-오정희, 「중국인 거리」

- * 독(讀): 봄, 가을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큰 나무나 강
- * 해인초: 홍조류의 해조. 주로 회충약으로 먹으며, 석회의 접착력을 높이는 데 쓰이기도 하였음.
- * 초조(初潮): 여성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월경.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 ③ 초점이 되는 화자를 다수 등장시켜 사회 현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여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유년시절에 대한 회상을 중심으로 서술자의 주관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㉔~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여, 현재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㉔: 공간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여 전후의 어두운 사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㉕: 어린아이의 시선에 비친 현실의 모습을 독백조로 표현하여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㉕: '치옥'의 말과 꿈을 회상하며, 현재 힘겨운 삶을 사는 '치옥'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⑤ ㉕: '그'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나'의 심리가 감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충'은 무질서나 상실, 전쟁의 잔재와 같이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해인초'의 냄새는 '나'에게 현재와 과거, 그리고 새로운 공간과 이전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노란빛'은 메스꺼움과 연관되는 색깔로, '나'가 겪은 도시의 무질서함과 이로 인한 불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종이 꾸러미'는 '나'가 앞으로 마주할 성장의 고통에 대한 작은 위로라고 볼 수 있겠어.
- ⑤ '종소리'는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이자, '나'가 시작할 새로운 삶과 성장의 기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장소설’은 미성숙한 인물이 세계와의 대립이나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고 독립적이고 성숙한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 그 과정에서 인물은 자신과 주변의 여러 대상, 혹은 그 대상들의 다양한 존재 방식에 관심을 보인다. 한편 성장 과정에서 인물이 대립이나 갈등을 극복하는 대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완의 성장소설’로 남는 경우도 있다.

- ① ‘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이라 할 수 있다.
- ②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 ‘나’가 여성의 존재 방식과 그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 ③ ‘어머니’의 출산에 직면하여 ‘나’가 ‘벽장 속에 숨어들어’ ‘낮잠’을 잔다는 점에서, ‘미완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 ④ ‘절망감과 막막함’을 느끼며 ‘초조’를 경험하는 ‘나’를 보여주며 이야기가 끝난다는 점에서 ‘미완의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 ⑤ 미장원에서 일하는 ‘치옥’의 모습에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주체가 되어가는 ‘성장소설’로 볼 수 있다.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화기 이후 근대시를 창작하고자 했던 우리 시인들의 노력은 크게 **음악성** 지향과 **회화성** 지향의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김소월 등 전자를 추구했던 시인들은 전통시가의 율격과 시상 전개방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것들에 변화를 줌으로써,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율격을 찾아내어 이를 작품에 구현하려 하였다. 반면 김광균 등 후자를 중시했던 시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의 핵심요소로 여겨졌던 운율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대신,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절제, 일상적 소재와 일상의 언어 사용 등 서구 이미지즘의 모토를 근대시 창작방법론으로 내세우는 한편,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간접하고 명확한 시각적 심상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박목월 등은 이 두 입장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근대적 율격과 명징한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갖춘 시가 근대적 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의 창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박목월은 행간 절첩 등 서구 시의 창작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음악성의 구현에 활용하는 한편, 시각적 심상의 구현을 위하여 시의 형태까지 활용하는 등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낙엽(落葉)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紙幣)

㉠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문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베타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急行車)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風景)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

(다)

산은

㉤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 압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

43.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축약적 심상을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하여 표현할 정도로 회화성을 중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베타이', '포플라 나무', '셀로판지'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데에서 서구 이미지즘의 영향을 볼 수 있군.
- ③ 직유, 은유, 활유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한 것은 대상을 간접하고 명확한 시각적 심상으로 재현하기 위함이었어.
- ④ 특정한 음보율이나 음수율을 따르지 않는 산문체로 서술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음악성을 과감하게 포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화자의 감정표출보다는 대상의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에서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절제를 창작방법론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군.

44. (가)를 바탕으로 (나)에 구현된 **음악성**과 **회화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보랏빛', '옥 같은' 등 색깔을 환기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명징한 시각적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으므로 **회화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② 각 연이 모두 자연스럽게 3음보로 읽힌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시가의 율격을 바탕으로 리듬감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음악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③ 1~2연에서 화자의 외부를, 3~4연에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선후형의 전통적 시상 전개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음악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④ 2연 2행의 '송이'와 3행의 '송이' 사이에 행 구분을 가한 데에서 서구 시의 창작 원리를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음악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 ⑤ 1연은 삼각형, 3연은 역삼각형의 형태로 글자를 배열함으로써 각각 땅 위의 산과 물에 비친 산의 이미지를 실험적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므로 **회화성**을 지향한 예라 할 수 있다.

45. (나), (다)의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전란의 참상을 엿볼 수 있어.
- ② ㉡: 화자의 시선이 원경(遠景)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의식이 드러나 있어.
- ④ ㉣: 화자에게 특정한 기억을 환기해주는 구체적 공간이야.
- ⑤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화자의 정신적 지향성을 보여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